

안녕하십니까? 경주국립공원 사무소 자연환경해설사 조재학입니다.
이번 저희 사무소에서 준비한 교구재는 “지진도 이겨낸 우리들의 맹세”라는 주제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2016년 9월 12일 유례없는 큰 지진이 경주를 강타하였죠?
경주에는 신라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지진을 견뎌낸 문화유산들이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 체험은 하나뿐인 지구에 남기는 환경서약으로서, 환경서약을 하게 된 계기는
신라화랑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충성을 다한 맹세가 적힌 비석, ‘임신서기석’을
모티브로 21세기 우리아이들이 지킬수 있는 맹세가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
‘북극곰의 눈물’이라는 방송을 보고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사용되는 전기제품, 일회용품 등의 소모품이 지구온난화로 이어져 귀여운 북극곰과
펭귄 친구들이 죽어가고 있고, 산성비로 인한 석조유물의 훼손이 더욱 가속화 될수
있다는 생각에 환경서약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낱말카드를 이용해서 지구 환경을 지킬수 있는 자원과
그렇지 못한 자원을 구분해보고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실천을 선택하여
환경서약을 하게 됩니다.

이 환경서약에는 신라시대 때의 임신서기석이라는 비석에 액자형태로 만들거나
임신서기석 방향제를 직접 만들어 우리 눈에 자주 보이는 곳에 두고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보며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즉, 미래세대들에게 “우리는 지구환경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직접 실천하는 행동의 변화를 가지게 만드는 것이 이 체험의 목적입니다.

앞서 말했던 임신서기석이 신라화랑들의 맹세인데 이 비석은 화강암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경주에는 이 비석뿐만 아니라 다양한 석재로 만들어진 문화재가 있는데,
그중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
응회암으로 만들어진 감은사지 3층석탑
안산암으로 만들어진 분황사 모전석탑이 대표적인 석조유물입니다.

어려운 암석에 대한 내용을 직접 모형을 조립하면서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주 국립공원은 사적형 국립공원이지만 문화재와 환경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국립공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